

(주)유카스

고기능성 치매 예방 발효유 개발 협의회 개최

(주)유카스(대표 이윤교)는 지난 8월 31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소장 이상진) 성환 대강당에서 축산과학원 주최로 개최된 ‘고기능성 치매 예방 발효유 개발 협의회’에서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생산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개발 과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첫 주제 발표자인 H&P 코퍼레이션 대표 최준표 박사(한경대)는 국내 발효유 산업의 현황 및 지방자치 단체의 브랜드 육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해 역설하였다. 특히 최박사는 50세 이상 인구 분포가 이미 25%를 상회하므로 이 시장에서 선진국형 우유 소비 패턴(우유소비율 45%)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소비촉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50세 이상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발효유를 생산하여 5% 시장을 점유할 경우 일일 100톤의 원유 소비를 소비하며 매출액은 연간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장정순 교수는 치매 예방 기능성 발효유의 생화학적 검증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제품 개발과 함께 효능 효과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한국 식품 연구원의 차성관 박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효모 이용 기능성 발효유에 대한 개발 배경에 대해 역설하였으며, 차박사는 국내에서 유업체들이 효모 이용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지적하고 그동안 효모 이용 발효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주)유카스 이윤교 대표는 자사 제품(‘우콜’ 특허등록)을 이용한 고기능성 콜린 원유 생산과 이를 이용한 생산자 브랜드 육성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특히 유카스는 농림부 특별과제를 통해 연구 중인 글루타치온 생성 효모의 발효유 이용과 기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CLA 생성 유산균의 병용 등의 발효유 컨셉에 대해 발표를 하고 향후 개발 일정에 대해 말했다.

이번 관련 협의회에는 관련 유업계,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유통업계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횡성군청)와 생산자 대표(횡성군) 등이 참석하여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은혜축산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농림부장관상 수상

은혜축산(대표 고상열)이 지난 9월 12~14일까지 개최된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에서 우수전시업체로 선정돼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은혜축산은 새로 개발한 자동 목걸이를 선보여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은혜축산 고상열 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큰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욱 축산발전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여 대한민국 축산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혜축산은 자동목걸이, 선풍기, 물통 등을 생산하는 기자재 업체로서 피나는 노력 끝에 신제품 ‘무소음 자동목걸이’를 생산해 내는 등 국내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파소텍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특별상 수상

파소텍(대표 박왕기)은 지난 9월 12~14일까지 개최된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파소텍은 착유기, 밀크메터, 발정탐지기, 냉각기 등 낙농기자재 전문업체다.

파소텍은 이번 박람회에서 정확한 유량산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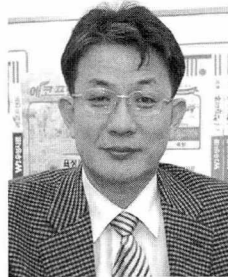
위해 유량을 무게로 인식하는 저울방식의 유량계인 LMS밀크메터, 소의 모든 활동을 2시간마다 체크하여 정액주입의 이상적인 시간대를 알려주는 SCR발정탐지기 등 유량계측과 다양한 착유프로그램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목표로하는 제품들을 소개하여 많은 참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파소텍 박왕기 대표는 “뜻하지 않은 큰상을 받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욱 좋은 제품을 선보여 우리나라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사료(주)

**손근남 우성사료이사,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서 대전광역시장상 수상**

발행결석/보석증 · *우성사료 (우성사료)



우성사료 손근남 이사가 ‘2007대전국제축산박람회’에서 축산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전광역시장’ 상을 받았다.

서울대 축산학과 출신인 손 이사는 우성사료

재직 중 50여종의 제품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낙농 및 비육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우성 여성낙농대학’을 개설, 현장 낙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본 오비히로 축산대학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한우 고급육 사료와 급여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업계 발전을 주도해 왔다. ☺